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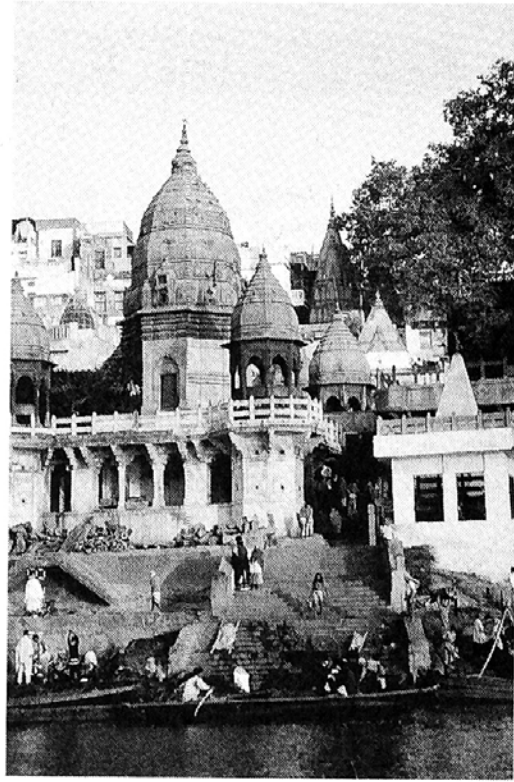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13 회 ③

크리스마스 험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죄인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죄 자체가 그를 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란 있을 수 없고, 또 누구도 대신 벌 받을 수 없다"

업은 통사가 아니고 명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어라 되지 따로 그 행위와 주체를 필요치 않는다. 업의 본질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스럽거나 행복한 다른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업은 우주의 법칙이지만 그 법을 제정한 입법자(立法者)나 그 법에 따라 심판한 재판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의 작용에는 인정사정이 없다. 담마파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하늘에도, 바다 속에도, 깊은 골짜기에도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부터 벗어날 공간은 없다"

관계에 있으며, 어쩌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윤회에 대해선 대개 수긍하지만 대부분 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선 생소해 하고 고개를 가우뚱 한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가 보는 윤회의 논리는 불멸하는 순수 영혼을 먼저 상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 다닌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는 자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생(轉生)과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업의 개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다는 복잡한 업의 논리에 바탕을 둔 윤회관은 한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바꾸어 간다는 단순한 윤회관보다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불교학자 나가무라 하지메(中村)



◇윤회에 대한 믿음은 전생의 업에 대한 현생의 보람을 당당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내세의 몸과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의 선업을 강조하게 했다. 사진은 갠지스강변의 장례식 장면. 다비를 기다리는 시신이 보이고 좌측에서는 다비가 진행되고 있다.

영혼불멸 부정... 윤회주체 '業'

부처님 무아설 기초 '현생 바른생활' '安心' 가르쳐

無我 - 윤회관계 유식학등 불교교리 발달사 주제

업에 대한 믿음은 불행에 대해 체념하고 참고 견디게 만든다. 파울 도이센은 인도 자이푸르에서 만난 어느 장님 거지에게 어쩌다 시력을 잃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장님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 자는 고통이나 그 자는 행복은 없다는 것이다. 인도인들은 자신을 허락하거나 공경한 것으로 본다. 고통받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전생의 죄를 보상받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덜어 주려고 도와주는 것은 빚을 갚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다는 보호소나 병원 짓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인도에서 윤회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끊이지 않은 기독교 사회와 분명히 대조된다. 한편 조종할 수도하는 것 외에 거의 모든 선업(善業)은 이윽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무의미하다면, 대체 어떤 것이 선업이 될 수 있을까.

업은 보편적인 법칙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업보(業報)를 뜻하기도 한다. 사람은 현재(現世)에서 행하는 악행과 선행에 따라 내세(來世)의 몸과 환경이 만들어진다. 불교신자는 윤회와 업이 서로 밀접한

인도에서는 윤회를 확고한 믿음으로 삼아 그 어떤 증명도 시도하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기독교 사회와 대조된다

원)도, 교리와 현실(민간신앙)사이의 괴리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무아설과 윤회설 사이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불교는 무아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혼과 같은 실체적 존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윤회는 무아설이 실제적인 영혼같은 존재가 업을 짊어지 채 한 생(生), 또 한생, 그 거꾸를 바꿔가 하는 것이다. 즉 윤회에는 마땅히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는 윤회설을 수용했는데, 그렇다면 무아설과 윤회의 주체와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석존에게는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석존은 어디까지나 현생에서의 바른 생활방식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안심(安心)을 가르친 사람이다. 한편, 석존은 무아(Kan-attman)설을 가르쳤지만 당시 힌두교 철학자들이 벌이고 있던 아트만(我) 논쟁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즉, 석존의 무아설은 형이상학적으로 아

트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그 존재를 부정했다는 의미의 무아설이 아니었다.

정말로 아트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존속하고 또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텐데 사실상 진정한 아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무아설이 석존의 무아설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아집도 없애고 산다는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무아설이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불교는 윤회를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와 무아설과는 특별히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석존의 입멸 후 약 백여년이 지나 부파불교의 시대로 접어들면 무아설은 그대로 무영혼설로 통용되어 곧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변해 간다. 그와함께 불교도 사이에서 물리적 의미로 수용된 윤회관은 마땅히 업을 짊어지고 윤회하는 주체를 묻게 되고,

따라서 그것과 무아설과의 관계도 역시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이것은 힌두교 계통의 철학자들과 벌인 토론에서 비판을 받은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 인도의 불교지도자들은 무아설과 윤회의 주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 불교 교리발달사의 커다란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대한 연구는 결국에 가서 유식학과의 아뢰아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교리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가 표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주하는 실체로서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격적 주체로서의 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혼은 3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불생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주체로서 업이나 경험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가면서 이어지는 유위법(有爲法)인 것이다. 유식(唯識), 법상(法相) 학설에서 말하는 아뢰아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타의 세계 PP·434~435)

번역: 김흥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김태곤 (가수)



나의 수행일기

제주해협을 건너는 항해에서 나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불교에 더욱 일심으로 귀의 하게 됐다.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한 탐구도 새로운 각도에서 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대중찬불가 만들기 작업도 힘을 얻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선(禪)과 법의 음율을 조화시킨 '일출봉'이란 노래를 만들었다.

질은 어둠 등에 업고 산마루에 올라보니 떠오르는 붉은 태양 마음의 눈을 뜨고 보세 사바세계 백발 번뇌 안개처럼 사라지니 한 모금의 샘물에도 너의 뜻이 담겨 있네.

기타를 치고 대금을 불고 평과리를 두드

'쌍골죽' 쓰임새 되새기며 투병

"내 노래 듣고 누구나 기쁨얻도록 노력해야지"

리며 노래를 하다보면 나는 늘 나 자신이 동해에 떠오르는 장쾌한 일출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은 내가 노래에 몰입하며 마음으로 보는 세상 일지도 모른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순간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가려는 나의 소망이 무의식의 경지에서 나를 통해 이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



무척 좋아하는 모습 보여 수행은 살아 가는 매순간 그 자체이고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일 보다 큰 수행도 없을 것이라 믿음을 갖게 됐다. 나의 기쁨과 남의 기쁨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노래로, 말로, 행동으로 나와 남을 함께 기쁘게 하는 지혜는

튼 나는 마음 먹었다. '동해로 가면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가면 서해로 가리라'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건 나는 나의 자리에 꿇듯이 서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을 노래로 부르며 기쁜 나날을 만들어 갈 뿐이니 그 자리에서 '기쁘다'는 생각조차 잃어 버릴 일이 오지 않았는가.

나는 요즘 새 음반을 만드는바쁘다. '일출봉'을 다시 편곡해 부르고 새로 만든 대중찬불가들을 음반에 담고 있다. 아직 내 몸의 병마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고통이 내 삶과 함께한다. 그러나 몸이 편하면 도를 구하는데 게으르게 된다는 말이 있듯 병마를 내 삶의 활력으로 삼고자 노력한다.

좋은 대금(大琴)은 쌍골죽으로 만들어진다. 쌍골죽이란 병든 대나무다. 병이들어 잘 자라지 못하다 보니 살이 두꺼워지고 골도 양쪽으로 파여 있다. 그런데 그 쌍골죽이야말로 평평한 소리를 내고 잘 갈라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귀여운 첫딸 자비의 첫출산처럼 두고 나와 아내를 여려가 지 궁리를 했었다. 남들처럼 집이나 음식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며 첫들을 보내야만 하는가를 고민했었다. 그럴즈음 조계종 총무원에서 캄보디아 난민들이 성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아내를 무언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우리 예쁜 자비의 첫생일은 난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념하자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늘 생각한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누구라도 듣고 기쁜 마음을 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 수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게 하소서!

현정스님의 열불선 이야기.....

「염불공부는 바로 참자기(眞我)를 찾는 가장 순수한 참선입니다.」
 <청학스님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많고많은 죄업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방향하고 고통받는 모든원인 또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생겨 난다고 합니다. 염불은 내가 나를 불러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염불은 내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현정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02)732-2403 ▶값 5500원

태아령 (胎兒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 (죄업소멸) 봉행

복덕증장

태안지장 (胎安地藏) 보살을 봉안하고 낙태유산아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서는 셋을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지옥중생을 모두 구원하고자 서원한 지장 보살님과 자비의 빛으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큰 자비에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 공덕의 삶 누리길 기원 합니다.

- ◆일시 : 불기 2540년 5월 31일 (입재) - 8월 28일 (회향)
- ◆동참회비 : 기도비 (5만원), 영가위패 1인당 (5천원)
- ◆온라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 ◆연락처 : 우)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53-1755 팩스 (0694) 53-0009

천봉산 대원사

주지 玄藏 합장

1박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 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위해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밝혀 향기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대원사 주말수련회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매주 토요일 5시 ~ 일요일 2시
- 수련내용 : 염불 명상법, 정토수행법, 자비관 선체조, 향공 (香功), 육근참회, 운력 등
- 수련지도 : 현장스님 ■회비없음
- 준비물 : "나를 보게 하소서" 사전속독 (민족사발행)
- 교통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타고 (사평중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혹은 군내버스)
- 연락처 : (0694) 52-1755 · 53-1755